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DIG

가제 : 감자뿌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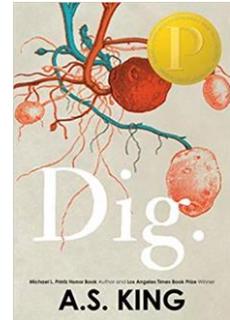
저자 : A.S. King

출판사: Dutto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5월 29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Printz Award 수상작

* **십대 소년 소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이한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점점 드러나는 초현실적인 소설**

이 소설은 빌과 잭, 로레타, 말콤 그리고 이름대신 '괴짜(The Freak)', '삽질하는 소년(Shoveler)',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anIHelpYou?)' 등 별칭으로만 알려진 다양한 십대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개되는 실험적인 소설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둘러싼 갈등, 가족의 비극에 대해 듣게 된다.

2018년 4월 1일 부활절, 마를라와 조프리드, 헤밍스 부부는 부활절을 맞아 장식한 형형색색의 달걀을 정원에 숨기고 있었다. 헤밍스 가문은 마를라와 조프리드가 감자 농사를 한 덕분에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덕분에 백만장자가 된 집안이었다. 두 부부는 자신의 아이들과 손자까지 다 자신들처럼 재산을 불리고 평평거리며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부부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던 어두움과 추악함은 자식들의 영혼들까지 파고들었고 견디다 못해 연락까지 끊고 부모의 곁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그 찌꺼기를 물려 받아 각자의 동굴 속에서 분투하고 있었다. 마구 잡이로 얽혀 있는 감자 뿌리들처럼 얽혀 있는 이들의 삶은 불행과 비극 속에서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다.

같은 날, 잭과 그의 형 빌은 한 고등학교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었다. 빌에게는 자신이 직접 기르고 있는 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뱀은 언제나처럼 빌의 목을 감은 채 코트 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두 형제는 여섯 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쌍둥이처럼 늘 달라 붙어 다녔다. 사실 둘이 쌍둥이 같다는 말은 단순히 둘의 사이가 돈독하다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두 형제의 불행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빌은 동생보다 여섯 살이나 많은데도 너무나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반대로 잭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성숙한 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잭은 열 살 무렵부터 이미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차 사고를 낸 건 겨우 열 두 살 때였던 것이다.

부활절로부터 84일 전 새벽 다섯 시 삼십삼 분, 3일전 이곳으로 이사를 온 '삽질하는 소년'는 해

안을 걷고 있었다. 소년은 아무렇지 않게 파도와 솔래 잡기를 하고 있었지만 해안가에 앉아 있던 낯선 이들은 모두 그를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열여섯 살인 삼질하는 소년은 자신이 기억하는 한 벌써 열일곱 번째 새로운 곳에 이사를 온 상황이었다. 그래서 소년의 머릿속은 각 지역별 추억과 그 곳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이름이 온통 다 섞여 무언가를 제대로 기억하는 그 자체가 아주 힘들었다. 그의 곁에 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소년의 엄마는 늘 돈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고 상사나 집주인은 물론 전기 회사랑도 늘 말다툼을 벌이며 단 한번도 진실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다. 게다가 그녀는 삼질하는 소년에게 단 한번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야기 해준 적이 없었다. 소년은 그래서 늘 어딘가 자기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고 이름도 모르는 자신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생각에 종종 공황 발작까지 일으키곤 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언제나 삼을 들고 다녔다.

3년 전, '괴짜'는 친구의 임신 사실을 떠벌리고 다녔다는 음모에 휘말려 한바탕 곤란을 겪은 후, 늘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 괴짜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만의 공상에 빠져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어느 날은 베를린으로, 또 어느 순간에는 열대 섬의 한 해변으로, 대학 강당으로 오가며 살고 있었다. 이런 괴짜에겐 혼혈아 태생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괴짜의 부모는 딸이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과 데이트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태도를 보였다. 세상에 괴짜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때문에 괴짜는 마치 삶을 영화 세트장처럼 여기며 사는 방식을 택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는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한 때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님을 증오하게 되었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용돈을 벌며 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루 중 그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였는데 사실 그녀는 그곳에서 음식을 파는 일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마약 거래까지 하고 있었다. 한편 또 다른 소녀 로레타는 가난과 가정 폭력 그리고 성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녀가 유일하게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집안의 버릇들을 모아 서커스를 시키는 일이었다.

머지않아 마를라와 조프리는 자신들의 패착으로 인한 불행의 씨앗이 자식을 넘어 자신들의 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서로 흩어져 살고 있던 사촌 형제들의 이야기가 한 순간 맞물리게 되는 시점이 오면서 소설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트럼프 시대에 방황하는 미래 세대들과 구세대, 그리고 가족의 유산과 비극, 혼란에 관한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A.S. 킹 (A.S. King)은 비평단의 찬사를 받은 바 있는 『I Crawl Through It』으로 'Walden Award'에서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Ask The Passengers』라는 작품으로 LA 타임즈에서 상을 받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작가이다.

제목 : GHOUL SCOUTS
가제 : 골 스카우트
저자 : Taylor Dolan
출판사: Guppy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6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모험/9-12세



*** 어둡고 기이한 것들을 선망하며 살던 소녀가 정말로 무서운 캠프장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렉시 와일드는 어느 여름, 한 캠프장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은 렉시가 원래 가려던 곳과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 캠프장이었다. 그곳은 바로 좀비, 늑대인간, 메두사, 마녀들로 득실대고 있을 골(Ghoul, 사람의 시체를 먹는 악귀라는 뜻) 스카우트 캠프장이었다.

렉시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어른들이 항상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머리 색은 점점 회색 빛이 되어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렉시는 유명뿐만 아니라 뱀파이어, 바다 괴물, 빅풋까지 전설이나 신화 속에만 등장하는 미지의 존재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렉시의 이런 믿음은 단순한 어린 아이의 상상 정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렉시가 그런 존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렉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늑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렉시는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름 캠프장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오는 길에 함께 노래를 부르느라 서로 정신이 다른데 팔려서 그랬는지 렉시가 도착한 장소는 왠지 엉뚱한 곳인 것만 같았다. 렉시는 갑자기 본능적으로 뭔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우선 할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 까봐 걱정이 되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렉시는 발랄하고 명랑한 아이들의 틈 속에 섞여 오두막 집에서 자는 것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어두운 숲 속에서 캠프 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 반장이란 사람들은 몸집 하나에 머리가 세 개가 달린 세 자매들이었다. 세 자매 반장은 렉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렉시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왜 지각했냐며 나무라기까지 했다. 그러곤 다시 골 스카우트 캠프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빗자루 하나를 건넸다. 렉시는 순간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캠프 반장이 마녀라는 확신이 들었다. 렉시는 반장의 지시에 따라 빗자루에 올라탔다. 렉시는 곧, 빗자루를 탄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빗자루를 타고 겨우 어두운 습지를 지나 침실에 도착한 렉시는 침대 위 베게 옆에 놓여 있는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쪽지는 세 자매이자, 캠프의 반장인 파르사이, 세이지, 로즈마리가 쓴 것이었는데 ‘렉시를 저녁으로 잡아 먹게 되어 기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황당한 쪽지 내용에 공포에 사로 잡혀 있던 렉시는 방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누군가가 냄새를 맡는 듯 쿵쿵대

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렉시는 이 상황을 모면할 온갖 묘수를 떠올려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렉시는 곧 작전을 바꿔 의문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저녁식사 거리가 되기엔 자기의 몸집이 너무나 작아 먹을 것도 별로 없으며 세버포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이야기꾼이라는 사실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렉시는 의문의 소리의 주인공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미지의 인물은 렉시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는지 웃기 시작했고 갑자기 오두막의 ‘에이미 루루’라는 여자가 자신의 모습을 렉시의 눈 앞에 드러냈다. 그리고 오두막의 방문이 활짝 열리며 또 다른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렉시가 마치 얼마 전 무덤에서 기어 나온 자신의 고모를 닮았다며 마구 웃어댔다.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는 프랑스식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몸은 빼만 남은 여자였는데 해골을 덮고 있는 머리칼만큼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두교 창시자인 바론 사메디의 수양딸이라고 소개했다. 할머니에게 이미 바론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 렉시는 적어도 베베의 성미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죽은 마시멜로처럼 생긴 ‘스위트 부’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마치 머리만 동동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 같기도 했다. 렉시는 이제 아무리 괴생명체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자신일지라도 눈 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광경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만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이번에는 ‘마리 쉘리’라는 좀비까지 등장했다. 결국 이 모든 골스카우트 단원들은 자신들처럼 해골도 아니고 좀비도 아닌 렉시일지라도 그녀가 천재적 이야기꾼임을 고려해 차마 먹이로는 삼지 않겠다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모두들 그 방에서 잠이 들었다.

죽은 듯이 푹 자고 난 후 자정에서야 일어난 렉시는 이번엔 어디선가 깨름칙한 노랫소리가 방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알아챘다. 노래의 내용은 축축하고 어두운 곳을 다니며 함께 감기에 걸리는 축제에 가자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렉시는 감기에 걸리는 것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떤 게임에서든 활약하길 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안개가 가득한 바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골스카우트 단원들과 세 자매에게로 다가갔다. 단원들과 함께 늪지대로 간 렉시는 늪지대 위로 초록색 방울들이 갑자기 반짝이며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스위트 부와 세 자매는 나비 채를 꺼내더니 그 방울들을 잡기 위해 마구 뛰어다녔다. 그 사이 렉시는 마리의 조언에 따라 가짜로 재채기를 하는 척 하면서 바닥에 주저 앉았다. 그 순간 렉시의 재채기 소리를 들은 초록 방울들이 렉시에게로 다가왔다. 그러자 렉시의 머리카락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코까지 점점 커졌다. 과연 앞으로 이 캠프장에서 렉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형들과 위협은 어떤 것들일까? 괴짜 소녀의 상상이 현실이 되면서 벌어지는 독특한 모형담이다.

<저자 소개>

테일러 돌란 (Taylor Dolan)은 늘 이야기들에 둘러 싸여 자랐다. 그녀는 캠브리지 예술 대학에서 아동 도서 일러스트 부문을 전공했다. 현재는 아칸소에 살면서 이 책의 다음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